2010 새해에는

이 장 환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쇼핑 넘어 문화체험공간 만들겠다

'스마일 신세계'로 지역민과 함께 유통업계 선도

지역법인으로 출발해 대표 유통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광주신세계 이장환 대표이사는 올해 '스마일 신세계'를 모토로 해 서비스와 마케팅을 혁신적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갖추고 파는 단순한 판매기능이 아닌 가치와 문화까지 그 대상을 넓혀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이미 전국 신세계 점포 가운데 고객만족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에서도 그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통서비스업은 즐거운 직장문화가 형성돼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다양한 깜짝 출근 이벤트를 연다거나 사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단순한 쇼핑공간을 넘어서 문화 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1층에서 다양한 전시회와 문화 공연들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스퀘어문화관 개관과 함께 복합문화쇼핑타운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해오고 있다.

또 지역법인으로서 지역친화를 가장 중요한 경영원칙으로 세워 장학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지역상품판로확대 등 4대 지역친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재단과 함께 희망배달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희망장난감 도서관 개관,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청각장애 어린이 치료비 지원, 소녀가정세대에 주거 안정비 지원 등의 소외계층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 대표는 "광주·전남지역 고객들로부터 15년째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광주신세계는 고객들이 있기에 존재하며, 올해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신세계는 지역 내에서 얻은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폭을 넓혀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기본인 '영업'을 더 잘해야 할 것"이라고 미소를 지었다.

함평, 강진, 완도, 영광 등 전남지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특산물과 소비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특산물전을 개최하고, 우수한 상품은 수도권까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에 나서는 것도 광주신세계의 대표적인 지역공헌사업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환경경영에 역점을 둔 윤리경영을 실천해 지역 유통업계 리딩기업으로서 친환경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IT·車 등 주도주 중심 매수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은행업 규제 뉴스에 매달리기보다는 주요 경제지표들과 기업실적, 그리고 오는 26~27일(현지시각 기준)로 예정된 FOMC(미연방 공개시장위원회)회의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들의 회복세가 둔화하고 실업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책금리는 동결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연초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며 1,72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주말 미국발 악재로 급락해 주간 기준 1.0%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주 금요일의 KOSPI 조정폭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최대 폭이었던 만큼 금주 시장대응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반응은 다소 과도했다는 판단이며, 이는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역시 지난 두 달 동안에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오며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기술적 조정의 빌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인들의 대규모 현·선물 매도,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의 선물 매도 공세로 인한 수급부담이 시장을 압박했다. 이는 다분히 시장의 불안심리 확대를 겨냥한 투기적 매도 세력의 진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악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앞서 지적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기록한 -37.66포인트 보다는 장중 저점에서 회복한 18.75포인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중심의 IT주와 자동차, 원전 관련주에 대한 매수대응을 유지하되 관심대상을 주도주 범위로 국한하고 추이를 살펴보는 접근을 권한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부점장들에 구두 선물한 까닭은?

신발 닳도록 뛰어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송기진〈왼쪽〉 광주은행장이 22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0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부점장 160명에게 구두 한 켤레씩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송 행장이 이례적으로 간부들에게 구두를 선물한 것은 '영업 현장에서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달라'는 당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깜짝 선물'은 송 행장의 아이디어로, 광주은행이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사상 최대 실적) 도전을 선언한 만큼 '전 직원이 신발끈을 고쳐매자'는 뜻도 담겨 있다고 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애초 선물로는 군화를 주는 것도 검토됐으나, 더 실용적인 구두로 낙점됐다고 한다.

광주은행은 또 이 행사에 열 손가락 없는 장애인으로 세계 7대륙 정상을 정복한 산악인 김홍빈씨를 특별초청, 새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은행측은 전 직원들이 불굴의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씨를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송 행장은 김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이 도약 원년을 선언한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날 2010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수익 중심 내실경영 강화 ▲지속적인 자산 건전성 높이기 ▲미래성장 기반 확충 등 중점전략 강화를 선언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통시장 설 차례비 13만9천원

대형마트보다 2만7천원 저렴

올 설 차례 준비를 위해 장을 볼 때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2만7천원 정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최근 전국 48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21개 차례용품의 값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이 평균 13만8천975원(4인 기준)으로 16만6천254원의 대형마트보다 약 2만7천원(16.4%) 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은 조사품목 21개 중 19개 품목이 더 저렴했는데, 채소·나물류 등은 평균 2만751원으로 대형마트(2만7천857원)보다 25.5%나 쌌고, 생육은 21.5%, 두부·가래떡·유과·약과는 8.7%, 과일은 5.9%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남경총 내일 여수서 '노사합동세미나'

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민수·(주)동양건설 회장)는 26일 오전 10시20분 여수 디오션리조트 벨라스타홀에서 전남지역 노사 대표와 관련기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노사합동 전남발전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의화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생'을,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010년 노사관계 쟁점과 전망', 박준영 전남지사가 '전남발전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전남경총은 지난해 4월 창립한 경제단체로 현재 전남지역 112개 업체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